

1990년대 이래 중국의 군사사연구 동향

金 景 一

(중국 베이징대 교수)

1. 서 론
2. 1990년대 이래 군사사의 종합연구
3. 청일전쟁과 근대군사사 연구
4. 토지혁명전쟁과 중국공농홍군사연구
5. 항일전쟁과 팔로군, 신사군, 국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의 군사사연구
6. '해방전쟁사'와 중국인민해방군사
7. 6·25전쟁과 중국인민지원군사
8. 결 론

1. 서 론

중국에서 군사사 연구는 문화대혁명이 종식된 후 1980년대 학술부흥기를 맞아 과도기를 거친 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전의 종합적인 연구, 청일전쟁¹⁾시기의 근대군사사연구, 토지혁명시기²⁾의 중국공농홍군군사, 항일전쟁시기의 팔로군·신사군·동북

항일연군·국민군의 군사사연구, 해방전쟁시기의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사연구, 6·25전쟁시기의 중국인민지원군 군사사연구 등은 국제적인 냉전분위기와 국내정치의 특성에 의해 연구의 제약성을 가지고 단조로운 시각에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토지혁명전쟁시기부터의 군사사는 거의 모두 공산당 산하의 군대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어 왔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주로 중국공산당 역사에 취급되면서 학술적 색채보다 정치적 색채, 이데올로기 색채가 짙었기에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인물과 사건은 연구가 금지되어 있어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문화대혁명과 같은 시기에는 많은 역사가 왜곡되어 선전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950년대에 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역사문헌과 자료들이 발굴되었는가 하면 군사사 당사자들의 회고록 등이 출간되어 대량의 자료를 축적한 것은 중요한 기초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중국에서는 역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군사사는 객관적이고 전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연구는 제반 학술분야의 부흥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연구성과가 배출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특징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새로운 연구방법의 도입, 그리고 전방위적인 연구, 다시각적 접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군사과학원, 국방대학 등 군계통의 군사연구자들과 대학, 연구기관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오면서 역사적 측면의 연구와 군사적 측면의 연구를 상호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남겨두고 있다.

1) 중국학계에서는 “청일전쟁”을 “갑오중일전쟁” 또는 “중일갑오전쟁”, “갑오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토지혁명전쟁은 “제2차 국내혁명전쟁” 또는 “10년 내전”이라고도 한다. 그 시기는 1927년 4월과 7월 장개석(蔣介石)과 왕정위(汪精衛)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부터 1937년 중일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 기간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운 전쟁을 이른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이루어진 종합적인 군사사연구, 청일전쟁시기, 토지혁명전쟁시기, 항일전쟁시기, 해방전쟁시기, 6·25전쟁시기 등 시기별에 따른 군사사연구를 개괄하여 논술하려 한다.

2. 1990년대 이래 군사사의 종합연구

1950년대부터 1980년 이전의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사연구는 주로 군사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중국인민해방군 각 군구(军区)에서는 군사사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제1차 국내혁명전쟁, 제2차 국내혁명전쟁과 제3차 국내혁명전쟁,³⁾ 항일전쟁, 항미원조전쟁에서의 군사사를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특징을 보면 중국공농홍군 시기부터 중국인민해방군 시기까지의 군사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전면적으로 정리하였고 대량의 문헌자료를 발굴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거의 모두 중국공농홍군 시절부터의 당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시기의 군사사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 시기 국내정치사정과 좌경적인 영향 때문에 군사사연구에는 접근하여 연구할 수 없는 수많은 금구(禁区)가 있어 다각적인 연구와 객관적인 평가가 결핍되었다. 또한 중국의 군사사연구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군군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간혹 있다 하여도 거의 모두가 부정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시기 중국근대군사사에 대한 중

3) 제1차 국내혁명전쟁은 “북벌전쟁” 또는 “대혁명”이라고도 한다. 1924년부터 1927년 장개석이 반혁명쿠데타를 일으키기 전까지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이 제1차 국공합작을 하여 군벌과 벌인 전쟁을 가리킨다. 제2차 국내혁명전쟁은 각주 2에서 밝힌 “토지혁명전쟁” 또는 “10년 내전”을 이르는 것이며, 제3차 국내혁명전쟁은 “중국인민해방전쟁”이라고도 하는데 1946년 6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중국인민해방군과 국민당군이 벌인 전쟁을 가리킨다.

합적 연구는 대부분이 군사학 연구자들이 아닌 역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군사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전문성이 결여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사를 정면에서 긍정적으로 선전하는 시각에서 연구하고 서술하였기 때문에 군사사에서 묵과할 수 없는 실패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간혹 있다면 그것은 특정인물에 대한 부정과 연결시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80년대부터는 역사를 실사구시적으로 평가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대표적 연구성과로는 군사과학원에서 편찬한 『중국인민해방군전사』(『中国人民解放军战史』, 军事科学出版社 1987)라고 할 수 있다. 총 3권으로 된 이 저서는 1950년대부터 수집되어온 문헌자료와 사료를 기반으로 연구한 성과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내부발행으로 출간한 星火燎原编辑部的 『中国人民解放军发展序列: 1927-1949』(解放军出版社 1985)은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사연구에서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 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部에서 편찬한 『中国人民解放军六十周年大事记: 1927-1987』(军事科学出版社 1988)는 중국인민해방군의 60년 역사에서 겪은 200여건의 중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건군과 작전에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출간 전 해인 1987년까지의 군사사를 다루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근대군사사 연구 역시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1950년대 이후의 연구를 기반으로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张玉田·陈崇桥의 『中国近代军事史』(辽宁人民出版社 1987) 등 연구가 1990년대 근대군사사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낸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성을 띤 군사연구간행물과 근대사연구, 항일전쟁사연구 등 간행물들이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군사연구 관련논문들이 많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창립기부터 전쟁을 몸으로 겪어온 원로들의 회고록이 대량 출간되어 전쟁사연구에 생생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격적인 연구는 역시 199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특징은 종합적인 연구와 함께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시기의 좌경사상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연구분야도 확대되고 보다 학술적인 접근과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난 시기 정치적 원인으로 거의 공백상태였던 국민군 군사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다. 또한 해방군 군사사연구도 긍정 일변도로부터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 시기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사를 집대성한 연구성과로는 단연 중국군사과학원 军事历史研究部和 军事图书馆 등에서 편찬한 『중국인민해방군전사』(『中国人民解放军全史 1-10』, 军事科学出版社 2000)를 꼽게 된다. 전 10권으로 된 이 저서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방대한 연구진을 편성하여 진행한 연구결과로서 이 프로젝트에는 중공중앙당사연구실, 중공중앙문헌연구실, 중공중앙당학교, 국방대학, 중앙당안관, 해방군당안관, 중국군사박물관, 중국제2역사당안관 등 중국에서 최고권위의 연구기관과 군대내의 군사연구전문가, 대학과 연구기관의 사학자 그리고 전쟁참여자들이 대량 참여하였다. 이 저작은 방대한 역사문헌과 군문서, 전보지시문, 신문보도 등 1차적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로서 체계적이며 다각적인 시각과 전방위적인 연구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역사를 집대성하여 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저작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겨 있다.

第一卷：中国人民解放军的七十年 신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의 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총화하고 있다. 약소한 병력의 홍군으로부터 현대화의 인민해방군건설에 이르기까지의 군사를 총화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문화대혁명 기간의 군사도 밝히고 있다.

第二卷：中国人民解放军七十年大事记 1927년 8월 1일부터 1997년까지 시간순서로 군사에서의 상하급부대간의 문건내왕, 전보, 명령문, 회의기록 정황보고, 신문보도 등 1차적 자료가 망라되어 있다.

第三卷：中国人民解放军战史(土地革命时期)中国工农红军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공농홍군이 1927년부터 1937년 항일전쟁전까지 정강산 근거지에서 국민당군의 토벌에 맞서 반토벌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홍군의 주력이 2만 5천리 장정을 하는 과정, 당과 군에서의 모택동의 지위확립, 홍군 3대 주력부대의 회합, 국내혁명전쟁이 항일전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第四卷：中国人民解放军战史(抗日战争时期) 항일전쟁시기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을 이룬 상황에서 팔로군과 신사군 그리고 중국공산당 해방구에서의 항일전쟁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第五卷：中国人民解放军战史(解放战争时期)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대결을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100만의 병력이 국민당군 807만과 대결을 펼쳐 승리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第六卷：中国人民志愿军抗美援朝战史 6·25전쟁에서의 1차전역부터 5차전역까지의 전쟁과정과 작전사를 서술하고 있다.

第七·八卷：中国人民解放军战役战斗总揽(上·下) 1927년부터 1949년까지의 매개 전역, 전투의 내용과 작전명칭, 작전구역, 작전부대와 상대방의 작전부대, 작전결과 등을 서술하고 있다.

第九·十卷：中国人民解放军组织沿革和各级领导成员名录(上·下) 1927년부터 1950년초까지 중국인민해방군 군대제도의 연혁과 지도성원들의 변경 상황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밖의 종합 연구성과로는 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部 편찬의 『简明中国人民解放军战史』(军事科学出版社 1992)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에서부터 6·25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전쟁사를 다루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부터 1991년까지의 군사사를 다룬 중요한 연구성과로는 李澄等の 『建国以来军史百桩大事』(知识出版社 1992)를 꼽을 수 있다. 中国人民解放军历史资料丛书编审委员会가 편찬하고 张震이 저술한 『总参谋部回忆史料 1927-1987』(解放军出版社 1995)는 중국인민해방군 60년 역

사 가운데 총참모부에 대한 회고록으로서 생생한 역사를 담고 있어 귀중한 1차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⁴⁾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는 중국공산당의 역사와 갈라놓을 수 없는 중첩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당이 총을 지휘한다”는 이론은 바로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1980년대 전에는 군사사가 당역사에서 취급되면서 정치적 선전용으로 활용되었지만 1990년 후의 연구는 다른 시각에서 당과 군대의 관계를 다룬 연구성고가 나오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정치사상사업역사를 다룬 李泽·季强的『中国人民解放军政治工作史鉴』(北京大学出版社 1992), 姜思毅·孙庆云的『中国共产党军队政治工作七十年史』(解放军出版社 1991) 등은 주로 토지혁명전쟁시기부터 항일전쟁시기의 성숙기, 해방전쟁과 항미원조전쟁시기의 발전과정으로부터 현대화과정에서의 군대정치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것은 군대내 당사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중국공산당의 군사사론을 전문적으로 다룬 저서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肖裕声의『中国共产党军事史论』(中央文献出版社 2004)이 있다.⁵⁾

이 시기 중국고대의 원시사회말기부터 근대의 신해혁명에 이르기까지의 군사사를 다룬 대표적인 저서로는 국가연구 프로젝트로 추진되어 출간한『中国军事通史』(军事科学出版社 1999)가 있다. 이 저서는 40여 명의 군사사

4) 이밖에 李殿仁의『图文并说中国人民解放军大事聚焦』(中国人民解放军出版社 2002)와 같이 중국인민해방군대사기를 서술한 저서가 있는가 하면 모택동의 군사사상을 연구하면서 군사를 서술한 연구로 刘林·王刚의『毛泽东用兵真如神』(中国物资出版社 1993) 등이 있으며, 군사사전으로 郭化若의『中国人民解放军军史大辞典』(吉林人民出版社 1993) 등이 출간되었다.

5) 이밖에 주로 전쟁사를 통해 군사를 서술하고 저서로 齐培礼의『中国人民解放军之最』(海潮出版社 1990), 中国人民革命军事博物馆 편찬의『中国人民解放军战史图集』(中国地图出版社 1990) 등이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된 후의 군사를 다룬 연구로는『军旗飘飘: 新中国50年军事大事述实』(解放军出版社 1999)와 张爱萍主编의『中国人民解放军』(上·下)(当代中国出版社 1994) 등이 있다. 군사사 교재로는 刘国语的『中国人民解放军战史教程』(军事科学出版社 2000)이 있다.

연구자들이 10년 동안 연구편찬한 것이다. 총 17권 20책으로 무려 800만자가 되는 이 저서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사를 우선으로 하면서 5,000년 중국군사사에서의 历代年制, 重要战争, 武器装备, 军事地理, 军事后勤, 军事思想, 军事人物 등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군사활동 중의 경험교훈을 사실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제반 군사사를 살펴보는 데 손색이 없는 계통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중국근대군사사를 다룬 연구성과로는 『中国军事史』编写组가 편찬한 『中国军事史』(解放军出版社 1990·1991)가 있으며, 晨立·丁伟의 『惊雷狂飙: 百年中国军事大事』(科学普及出版社 2003) 등이 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1980년대 이전의 군사연구에서 가장 큰 공백을 남겨놓았다면 그것은 국민혁명군 군사사⁶⁾에 대한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부터 이 방면의 연구는 정치적 요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사연구에서 반면교재로 언급되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국민혁명군에 대한 연구가 점차 붐을 이루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가동되기 시작하여 『国民革命军发展序列』(解放军出版社 1987)과 같은 문헌자료들이 출간되어 왔다. 국민당군에 관련된 자료는 대륙보다 대만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대만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대만의 자료와 연구성과들이 대륙으로 유입되면서 대륙학자들의 연구가 빠른 기간에 많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 항일전쟁에서 정면전장을 열어놓은 국민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다각적 시각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국민혁명군 군사사에 대한 총체적 연구로는 1980년대에 출간된 张宪文的 『中华民国史纲』(河南人民出版社 1985), 『中华民国史』(中华书局 1988)에서 중화민국 역사의 한부분으로 다루어졌으며 국민혁

6) 1925년에 광주에서 성립된 국민정부는 산하의 군대를 국민혁명군으로 개칭한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제1차 합작시기에 중국공산당원들이 많이 여기에 가입하여 북벌전쟁을 치렀었다. 1927년 장개석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당원을 숙청하면서 국민혁명군에 대한 칭호는 “국민당군대”, “국민당군” 등으로 불린다. 여기에서는 “국민혁명군”이란 명칭을 쓰기로 한다.

명군의 역사를 실록으로 다룬 저서로는 王楠의 『国民革命军沿革实录』(河北人民出版社 2001) 등이 있다. 분야별로 다룬 저서로는 杨志本的 『中华民国海军史料』(海洋出版社 1987)의 뒤를 이어 출간된 陈书麟·陈贞寿의 『中华民国海军通史』(海潮出版社 1993) 등이 있다. 국민혁명군의 역사를 계통별로 다룬 刘敬忠·田伯伏의 『国民军史纲』(人民出版社 2004)은 1924년 10월 冯玉祥이 쿠데타로 국민군을 창설하고 1927년에 국민혁명군에 편입시키기기까지의 군사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이 합작하여 진행한 “北伐战争”에 대한 회고록으로는 全国政协文史资料委员会·广东省政协文史资料委员会의 『国民革命军北伐亲历记』(中国文史出版社 1994)이 중요한 역사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밖에 시대별에 따라 국민당 군사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항일전쟁시기의 국민당 군사사에 대한 연구가 주목된다.

1980년대는 회고록 출간이 붐을 이루었다. 군관계자들의 회고록은 중국인민해방군 출신뿐만 아니라 국민당군 출신의 지휘관들까지 포함하여 방대함 양으로 출간되었다. 1990년대에도 여전히 많은 회고록들이 출간되어 전쟁사 연구에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程子华的 『程子华回忆录』(中央文献出版社 2005) 등이 있다.⁷⁾ 이밖에 저명한 군사가들의 군사문선도 출간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인민해방군 10대 원수(元帅) 가운데 1명인 徐向前的 『徐向前军事文选』(中国人民解放军出版社 1993)이다. 이 문집에는 중국공농홍군시기 徐向前이 작성한 군대행동계획, 작전계획, 유격전쟁에 대한 전략전술, 군대동원령, 전투총화, 전쟁상황 분석, 군대건설의 방침, 군대교육에 관한 견해, 전투중의 작전지시 등이 있는가 하면 군사사를 정리한 것도 있다. 예컨대 『西路军失败主要教训』 등이다. 이 저서의 많은 부분은 중국인민해방군 건설에 대한 저자의 논술이다. 『谢有法将军文

7) 钟期光的 『钟期光回忆录』(解放军出版社 1995), 李志民的 『李志民回忆录』(解放军出版社 1993), 当代中国人物传记丛书 邓力群, 马洪·武衡의 『栗裕传』(当代中国出版社 2000) 등이 출간되었다.

輯』(国防大学出版社 2000)과 같은 군사학 관련 문집들도 나왔으며 중국인 민해방군 각 병종에 대한 사료도 출간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中国人民解放军历史资料丛书编审委员会에서 편찬한 『装甲兵回忆史料』(解放军出版社 1995), 『防化兵 回忆史料』(解放军出版社 1995) 등이 있다.

중국의 군사사연구에 1차적 자료를 제공하는 신문으로는 “解放军报社”에서 발행하는 『解放军报』와 『中国国防报』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에는 군사사 연구동향이나 새로운 연구성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경상적으로 군사사 관련 회고록 같은 것들이 단편적으로 실리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료발굴 같은 것들도 보도되고 있다.

이밖에 1980년대 이후 군사사에 대한 연구가 군사학 차원의 학술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면서 군사사를 연구하는 전문연구지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여 많은 연구성과들이 출간되고 있다. 여기에는 1985에 中国人民革命军事博物馆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军事史林』이 있으며, 1986년 空军南京政治学院上海分院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军事历史研究』가 있다. 1986년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에서 발행해 온 『军事历史』 연구지도 격월간으로 격상 발행하는 학술지로 정평이 나 있다. 『国防大学学报』 등 위에서 소개한 연구지들은 모두 근현대 군사사를 다루고 있다. 그밖에 군사계통외의 권위 있는 근현대 역사연구지들로는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에서 발행하는 『抗日战争研究』, 『近代史研究』가 있으며, 동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비정기간행물 『近代史资料』, 『国外中国近代史研究』 등에는 근현대 군사사 관련 연구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⁸⁾ 中国社会科学杂志社에서 『历史研究』도 중국에

8) 이외에 역사와 군사사관련 논문들이 실리고 있는 연구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文史精华』(『文史精华』杂志社); 『史学月刊』(河南大学); 『中国史研究动态』(中国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中国史研究』杂志社); 『中国史研究』(中国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中国史研究』杂志社); 『文史哲』(山东省济南市山东大学『文史哲』编辑部); 『文史知识』(北京『文史知识』编辑部); 『档案与史学』(上海『档案与史学』编辑部); 『当代中国史研究』(北京『当代中国史研究』杂志社); 『世界历史』(北京『世界历史』编辑部); 『中共党史研究』(北京『中共党史研究』编辑部); 『史学史研究』(北京『史学史研究』编辑部); 『百年潮』(北京『百年潮』杂志社); 『历史教学』(天津『历史教学』编辑部); 『史学集刊』(长春『史学集刊』编辑部); 『文史精华』(石家庄『文史精华』

서 가장 권위있는 역사연구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군사사와 역사연구 사이트도 많이 생기면서 관련 논쟁도 일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이트로 『史海烟云』(<http://military.china.com/zh-cn/history/index.html>)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사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에서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모택동의 군사사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모택동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면도 지적되었지만 모택동의 군사사상에 대한 평가에서는 거의 모두가 긍정적인 것이었다. 특히 1990년대 제반 군사사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모택동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 역시 보다 높은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중국공농홍군 시기부터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중요한 전쟁을 모택동이 지휘하였던 만큼 모택동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가 바로 중국인민해방군군사사에 대한 깊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모택동은 토지혁명전쟁부터 항일전쟁, 해방전쟁시기에 중국혁명전쟁의 특징, 중국혁명전쟁의 전략전술, 중국 혁명근거지 건설, 국민당과 공산당의 군사사에 대한 문제 등을 주제로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바로 이 모택동의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가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사연구와 함께 궤도를 같이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廖国良·李士顺·徐焰의 『毛泽东军事思想发展史』(解放军出版社 1991), 郑文翰主编의 『毛泽东思想研究大系·军事卷』(上海人民出版社 1993), 陈继安主编의 『毛泽东军事思想新论』(军事科学出版社 1995), 侯鲁梁의 『毛泽东建军思想概论』(解放军出版社 2003)

杂志社); 『纵横』(北京『纵横』杂志社); 『历史档案』(北京『历史档案』编辑部); 『人物』(北京『人物』杂志社); 『党史博览』(郑州『党史博览』编辑部); 『岭南文史』(广州『岭南文史』编辑部); 『文史春秋』(南宁『文史春秋』编辑部); 『档案与历史』(上海『档案与历史』编辑部); 『史林』(上海『史林』编辑部); 『上海文史资料选辑』(上海市政协文史资料编辑委员会); 『历史学习』(天津『历史学习』编辑部); 『中国社会历史评论』(天津南开大学社会历史研究中心『中国社会历史评论』编辑部); 『北京党史』(北京『北京党史』编辑部); 『天津党史』(天津『天津党史』编辑部). 이 밖에 각 성과 지구 사회과학원에서 꾸리는 연구지들과 대학들에서 꾸리는 학보에도 관련 연구성구들이 간헐적으로 실리고 있다.

등이 있다. 军事科学院 战争理论和 战略研究部 研究员인 毛新宇의 박사학위 논문인 『毛泽东战略进攻思想研究』는 모택동의 손자인 毛新宇가 모택동이 지휘한 전쟁에서 모택동이 지시한 대량의 군사지휘 전보문을 연구한 결과로서 모택동이 제창한 10대 군사원칙이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3. 청일전쟁과 근대군사사 연구

청일전쟁을 둘러싼 근대군사사 연구는 국민정부시절에도 간간히 진행되어 저명한 역사학자 翦伯赞의 『论甲午中日之战』(中国史论集 1948), 魏建猷의 『朝鲜问题与甲午之役』(『国专月刊』 5卷4期, 1937), 张治安의 『从甲午到七七』(桂林万有书店 1944)과 같은 연구가 나오면서 전쟁 발발원인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시기에는 거듭되는 전란과 사료의 결핍으로 피상적인 연구와 소개가 주류를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부터 근대사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근대 군사사연구는 주로 역사학자들에 의해 정리, 출간되었다. 중국역사학계의 거장들인 范文澜과 翦伯赞 등이 참여하고 중국사학회가 편집한 『中国近代史资料丛刊』은 이 시기 가장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청일전쟁에 대한 연구만 보아도 신지식출판사와 상해출판사에서 출간한 7권의 『中日战争』(新知识出版社 1956; 上海出版社 1957)은 총 300만자가 넘는 방대한 양으로 청일전쟁 자료를 집대성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는 대부분 정부산하의 연구기관에 의해 주도되었기에 설혹 개인이 집필한 것이라고 하여도 연구에서의 역사적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사실상 근대 군사사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이자 그 윤곽을 그리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50년대에는 청일전쟁에 참가하였던 당사

자들이 아직 생존하고 있어서 그들이 남긴 회고록은 귀중한 1차 자료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근대 군사사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많은 연구성과가 나왔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张墨·程嘉禾의 『中国近代海军史略』(海军出版社 1989), 吴杰章·苏小东·程志发的 『中国近代海军史』(解放军出版社 1989), 孙克复의 『甲午中日战争外交史』(辽宁大学出版社 1989), 『北洋舰队』(山东人民出版社 1981) 등이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근대 군사연구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청일전쟁 연구를 집대성하여 중국 근대사 자료총서 속편으로 『中日战争』(续编)(戚其章主编·孙克复副主编, 中华书局 1989-1996) 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저서는 처음 공개되는 자료까지 포함하여 총 550여 만자나 되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청일전쟁의 전모와 해전에 대한 연구도 많다.⁹⁾

199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를 보면 연구시각이 보다 넓어져 당시 국제정치와 국제관계속에서 근대군사사를 고찰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华立·戴逸·杨东梁의 『甲午战争与东亚政治』(中

9) 구체적인 연구성과로는 청일전쟁의 전모를 밝히는 寇伟의 『甲午战争史话』(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0), 乔还田의 『马关奇耻』(中国华侨出版社 1991), 邵循正·聂崇岐·张雁深的 『中日战争』(上海人民出版社·上海书店出版社 2000), 吴捷·刘志超의 『沉沦与抗争-甲午中日战争』(文物出版社 1991), 刘玉明·戚俊杰의 『甲午风云』(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 1998), 姜鸣의 『龙旗飘扬的舰队』(上海交通大学出版社 1991), 丛笑难的 『甲午战争百年祭』(华夏出版社 1994), 双传学·李信的 『甲午悲歌』(江苏人民出版社 1998), 戚其章의 『中日战争·第八册』(中华书局 1994), 郑彭年的 『甲申甲午风云』(复旦大学出版社 1997) 등이 있으며, 『丁汝昌集』(戚俊杰·王记华编校, 山东大学出版社 1997) 등이 있다. 갑오중일전쟁이 근대중국의 해상전쟁의 막을 열어놓았던 만큼 갑오중일전쟁에서의 해상전쟁에 관한 연구와 근대해군에 대한 저서가 많이 나왔다. 여기에는 王家俭의 『洋员与北洋海防建设』(天津古籍出版社 2004), 许华的 『甲午海祭』(华夏出版社·广东人民出版社 1997), 张炜의 『甲午海战与中国近代海军』(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0), 戚俊杰·刘玉明的 『北洋海军研究』(天津古籍出版社 1999), 『甲午海战与中国海防·纪念甲午海战一百周年学术研讨会论文集』(解放军出版社 1996), 戚其章의 『晚清海军兴衰史』(人民出版社 1998) 등이 나왔다. 근대해군사료집으로는 북양해군의 전모를 밝히는 谢忠岳의 『北洋海军资料汇编』(中华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 1994) 등이 있다.

国社会科学出版社 1994), 季平子的『从鸦片战争到甲午战争; 1839年到1895年间的中国对外关系史』(华东师范大学出版社 1998), 戚其章·王如绘의『甲午战争与近代中国和世界-甲午战争100周年国际学术讨论会文集』(人民出版社 1995), 戚其章의『国际法视角下的甲午战争』(人民出版社 2001), 杨念群的『甲午百年祭: 多元视野下的中日战争』(知识出版社 1995), 王如绘의『甲午战争与朝鲜』(天津古籍出版社 2004) 등이 있다. 특히『甲午战争与朝鲜』은 한국과 일본의 1차적 자료를 대량 이용하여 조선과 일본관계를 둘러싸고 갑오전쟁의 발발 원인을 밝히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국과 일본,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이 방면에서는 비교적 중요한 연구성과로 볼 수 있다.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결정적으로 패한 전장은 해상에서의 전쟁이었다. 청일이 치른 丰岛海战, 黄海海战과 威海海战을 중국에서는 총칭하여 “갑오해전”이라고 부르는데 그중 가장 치열하였고 결정적이었던 해전은 바로 黄海海战이었다. 그 시기 중국의 해상전투력은 거의 독일제 군함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일본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갑오해전”, 그 중에서 특히 군사학적으로 黄海海战의 실패원인을 밝히는 연구는 줄곧 청일전쟁 연구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한 부분으로 되어 왔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중국근대 군사사연구에서 가장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에 또한 논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黄海海战에서 함대를 거느리고 철퇴하였다가 후에 “도망죄”로 처형을 당한 方伯谦에 대한 쟁론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총체적으로 청일전쟁의 해상전투 연구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는 점은 전략전술문제, 지휘문제 등에 차질이 있었다는 견해이며 근원적으로는 당시 청 정부의 무능과 부패 등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다.

중국에서 청일전쟁 연구의 1인자를 꼽으라면 단연 1950년대부터 줄곧 청일전쟁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해온 戚其章(山东社会科学院甲午战争研究中心主任 研究员)을 꼽을 수 있다. 그는 1962년에 이미『中日甲午威海之战』이라는 선구적인 저서를 발간했으며 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 청일전

쟁 연구가 활기를 띤 것도 그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 결과 청일전쟁 연구는 거시적인 연구와 미시적인 연구가 결합되면서 또한 사료와 새로운 시각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4. 토지혁명전쟁과 중국공농홍군사연구

중국공농홍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창건 초기 명칭이다. 1924년부터 1927년 4월까지 국민당과 합작하고 국민당의 국민혁명군에 가담하여 북벌전쟁을 전개하던 중국공산당은 장개석의 배반으로 생사존망이 걸린 갈림길에서 1927년 8월 1일 “南昌起义”를 단행한다. 뒤이어 중국공농홍군을 창설한 이 시기에 중국공산당은 외적으로는 장개석 국민당군의 토벌로, 내적으로는 당내투쟁으로 갖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바로 이 시기에 중국공농홍군은 국민당군의 5차례의 토벌을 당하면서 중국에는 제5차 반토벌에 대한 실패로 2만 5천리 장정을 단행하여 복상을 하게 된다. 복상과정에서도 홍군은 국민당의 추격과 당내 갈등으로 모진 고난을 겪는다. 중국공산당의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이 시기는 1950년대부터 줄곧 혁명교육이나 정치선전의 시각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물론 문화대혁명 기간에 일부 왜곡된 점도 없지 않으나 거의 진실에 가까운 연구로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방면의 연구는 세분화되기 시작하면서 각 부대의 군사사가 상세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 중 중국공농홍군의 주력부대인 红一方面军, 红二方面军, 红四方面军의 군사사를 다룬 연구성파로 中国工农红军第一方面军史编审委员会 편찬의 『中国工农红军第一方面军史』(解放军出版社 1992), 中国工农红军第二方面军战史编辑委员会의 『中国工农红军第二方面军战史』(解放军出版社[北京] 1992), 中国工农红军第四方面军战史编辑委员会의 『中国工农红军第四方面军战史』(解放军出版社[北京] 1991), 中国工农红

軍第二十五軍戰史編撰委員會에서 편찬한 『中國工農紅軍第二十五軍戰史』(解放軍出版社 1990)를 대표적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에서 내놓은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로서 역시 많은 군사전문가들과 역사학자들이 동원되어 이론 연구결과로서 권위 있는 성과이다. 이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군사사료를 정리하여 출판한 中國工農紅軍第四方面軍戰史資料選編編撰委員會의 『中國工農紅軍第四方面軍戰史資料選編』(解放軍出版社 1992)과 中國工農紅軍第二方面軍戰史編輯委員會의 『中國工農紅軍第二方面軍戰史資料選編』(解放軍出版社 1996)이 전술한 연구성과를 실증적 사료로 보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¹⁰⁾

중국공농홍군의 역사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역시 중국공농홍군과 중국공산당의 운명을 바꾸어놓은 2만 5천리 장정이다. 1933년 9월 장개석이 100만이나 되는 군대와 200여대의 폭격기를 동원하여 중국공산당의 중앙근거지에 대한 제5차 토벌작전을 전개할 때, 중국공산당은 당내에서 王明의 좌경모험주의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모택동의 군사직위도 박탈을 당했다. 결과적으로 반토벌에서 실패한 중국공농홍군 8만명의 주력 부대는 중앙근거지를 포기하고 북상하게 된다. 바로 이 장정과정에 당과 군

10) 이밖에 紅一方面軍, 紅二方面軍을 다룬 연구성과로는 柳建偉의 『日出東方 紅一方面軍蘇區征戰備忘錄』(解放軍文藝出版社 1996), 劉秉榮의 『紅一方面軍紀實』(人民出版社 2003), 傅建文의 『血染的神話 紅一方面軍長征紀實』(解放軍文藝出版社 1996), 陳道闊의 『九霄忠魂 紅二方面軍征戰紀實』(解放軍文藝出版社 1996), 柳建偉의 『日出東方 紅一方面軍蘇區征戰備忘錄』(解放軍文藝出版社 1996), 許福蔭의 『最後的旋風 紅二方面軍長征紀實』(解放軍文藝出版社 1996), 陳道闊의 『九霄忠魂 紅二方面軍征戰紀實』(解放軍文藝出版社 1996) 등이 있다. 홍4방면군의 역사를 다룬 연구에는 많은 부분이 장정이 끝난 후 서부지역으로 진출하였다가 비참한 운명을 맞은 西路軍의 실록을 담고 있다. 紅四方面軍과 西路軍에 관한 연구로는 朱秀海의 『赤土狂飆 紅四方面軍征戰紀實』(解放軍文藝出版社 1996), 魏碧海的 『西陲血路 紅四方面軍長征及西路軍西征紀實』(解放軍文藝出版社 1996), 董漢河的 『西路軍沉浮錄』(甘肅人民出版社 1995), 蘭州軍區政治部編研室 편찬의 『西部悲歌[人類戰爭史上一頁慘烈悲壯的實錄]』(敦煌文藝出版社 1990), 董漢河的 『西路軍女戰士蒙難記』(解放軍文藝出版社 1990), 魏朝暉·魏亞平的 『血沃河西』(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3), 張壯壯의 『血染軍徽 西路英魂』(中國婦女出版社 1996) 등이 있다.

에서의 모택동의 지위가 확립된다. 이 장정에 대한 연구 역시 195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 후의 중요한 종합연구성과로는 中共中央党史研究室第一部에서 편찬한 『红军长征史』(辽宁人民出版社 1996)이다. 이 저서는 많은 연구성과들이 종합되었고 새로운 체계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장정 도중 모택동과 갈등을 빚으며 중국공산당을 분열하려 하고 제2의 중앙을 세우려 하면서 중국공농홍군을 위기에 내몰았던 张国焘와의 갈등, 투쟁을 연구한 성과들도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石永言의 『草地惊变 毛泽东, 张国焘从拥抱到决裂』(解放军文艺出版社 1994), 叶心瑜의 『惊心动魄 毛泽东在 1934-1936』(新华出版社 1993), 文显堂的 『是非曲直 长征中的政治斗争』(浙江人民出版社 1996) 등이 있다.

중국공농홍군의 주력부대가 장정을 시작하여 복상한 후 남은 부대들은 계속 남방에 남아서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이들에 대한 연구로는 阎景堂的 『南方三年游击战争史』(解放军出版社 1997)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공농홍군의 제반 군사사를 다룬 연구로는 王健英의 『“朱毛红军”历史追踪』(广东人民出版社 2000), 王健英의 『中国红军发展史』(广东人民出版社 2000), 胡兆才의 『铁血红军』(广东教育出版社 2000) 등과 吕黎平的 『红军总部的峥嵘岁月』(上海人民出版社 1993)과 같은 회고록 등이 있다. 이 면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창설에 참여한 萧克(上将)이 쓴 『朱毛红军侧记』(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3)는 중국공농홍군의 창설시기 창군원칙과 조직노선 그리고 창군 후의 전략과 전술 등을 망라한 중요한 연구성과이다.¹²⁾ 이 시기

11) 이밖에 장정을 다룬 저서들로는 朱少军·王晓阳의 『征程军魂 长征中的著名将领』(浙江人民出版社 1996), 常敬竹의 『战地女杰 长征中的红军女战士』(浙江文艺出版社 1996), 文化部党史资料征集工作委员会办公室 편찬의 『长征中的文化工作』(北京图书馆出版社 1998), 苗晓平的 『永恒情谊 长征与少数民族』(浙江人民出版社 1996), 肖显社의 『东方魅力 长征与外国人』(浙江人民出版社 1996), 金紫光·靳斯彤의 『外国人笔下的中国红军』(陕西人民出版社 1996) 등이 있다.

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刘勉玉의 『土地革命战争史 1927-1937』(江西教育出版社 2001)를 들 수 있다.

이밖에 중국공농홍군 주력부대가 복상하여 회합한 유지단(刘志丹)의 서북홍군에 대한 연구도 나오고 있다. 서북홍군은 중국공농홍군 주력부대가 아니고 유지단(刘志丹)이 창설한 부대였는데 주력홍군이 복상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북에 유지단의 서북홍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부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朱根生的 『西北红军的创建与发展』(军事科学出版社 2004)이 있으며, 冯捷의 『黄山坳·红风景 西北红军征战记』(解放军文艺出版社 1996) 등도 있다.¹³⁾ 1980년대에 출판붐을 일으킨 군 원로들의 회고록은 거의 모두 이 시기의 역사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이 시기의 군사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중국공농홍군이 정강산에서 국민당군대와 다섯 차례의 토벌과 반토벌의 대결을 펼치면서 승리와 패배를 겪은 경험을 다루고 있으며 중국공농홍군이 장정하면서 국민당군의

12) 이밖에 红一方面军, 红二方面军을 다룬 연구성과로는 柳建伟의 『日出东方 红一方面军苏区征战备忘录』(解放军文艺出版社 1996), 刘秉荣의 『红一方面军纪实』(人民出版社 2003), 傅建文的 『血染的神话 红一方面军长征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1996), 陈道阔의 『九霄忠魂 红二方面军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1996), 柳建伟의 『日出东方 红一方面军苏区征战备忘录』(解放军文艺出版社 1996), 许福芦의 『最后的旋风 红二方面军长征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1996), 陈道阔의 『九霄忠魂 红二方面军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1996) 등이 있다. 홍4방면군의 역사를 다룬 연구에는 많은 부분이 장정이 끝난 후 서부지역으로 진출하였다가 비참한 운명을 맞은西路軍의 실록을 담고 있다. 红四方面军과西路軍에 관한 연구로는 朱秀海의 『赤土狂飙 红四方面军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1996), 魏碧海的 『西陲血路 红四方面军长征及西路军西征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1996), 董汉河的 『西路军沉浮录』(甘肃人民出版社 1995), 兰州军区政治部编研室 편찬의 『西部悲歌[人类战争史上一页惨烈悲壮的实录]』(敦煌文艺出版社 1990), 董汉河的 『西路军女战士蒙难记』(解放军文艺出版社 1990), 魏朝晖·魏亚平的 『血沃河西』(北京师范大学出版社 1993), 张壮壮的 『血染军徽 西路英魂』(中国妇女出版社 1996) 등이 있다.

13) 이밖에 장정이 끝난 후 항일근거지 창설에 나서는 중국공농홍군에 대한 연구로는 中共山西省石楼县委宣传部 편찬의 『红军东征 影响中国革命进程的战略行动』(中共党史出版社 1997) 등이 있으며 주력홍군이 복상한 후 남방에 남은 홍군유격대의 활동을 다룬 실록으로는 万剑声·天宝著의 『碧血丛林 南方红军游击队苦战记』(解放军文艺出版社 1996) 등이 있으며, 이 시기의 회억록인 欧致富의 『我的红军时代』(广西人民出版社 1991) 등이 있다.

추격에서 벗어나는 전략과 전술을 다루고 있다. 사실상 그 당시 중국공농홍군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고비를 겪었는데 문화대혁명과 그 전의 정치운동에서는 홍군을 구한 것이 모택동이라고 평가하였다. 사실상 지금도 많은 학자들은 그 시기 “정치와 군사를 일체화”시키고 군대와 인민을 하나와 같이 단결시킨 모택동의 군사사상이 중국공농홍군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위에서 서술한 모택동 군사사상 연구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

5. 항일전쟁과 팔로군, 신사군, 국민혁명군,¹⁴⁾

동북항일연군의 군사사연구

1990년대 항일전쟁사 연구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항일전쟁사연구는 종합적인 연구, 항일전쟁에 참가하였던 중국공산당 산하의 팔로군·신사군·동북항일연군 및 국민당군을 비롯해 국공합작, 구체적 사변, 항일전쟁 적후전장(敵後戰場), 정면전장(正面戰場), 항일근거지연구, 남경대학살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 시기의 경제, 문화, 사상 및 사회 등 분야도 망라되어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항일전쟁 승리 50주년과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항일전쟁사 연구가 붐을 이루어 왔으며 대량의 연구성과물이 출간되었다. 항일전쟁전문연구 간행물인 『抗日战争研究』에는 대량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면서 보다 학술적인 접근이 이루어고 있다.

14) 사실 항일전쟁시기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이 제2차 합작을 하면서 중국공농홍군 제1방면군, 제2방면군, 제4방면군과 서북의 홍군은 국민혁명군 육군 제8로군으로, 주력홍군이 북상한 후 남방에 남았던 홍군과 유격대는 국민혁명군 육군 新编 제4군으로 개편되었다. 팔로군과 신사군은 중국공산당의 무장역량시기에 일반적으로 국민혁명군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중국에서 쓰는 관습대로 국민당소속의 군대를 계속 국민혁명군 또는 국민당군으로 칭한다.

1990년대 항일전쟁 군사사연구의 막을 연 것은 罗焕章·高培가 편찬한 『中国抗战军事史』(北京出版社 1995)라고 할 수 있다. 이 저서는 중국국내에서 처음으로 군사역사의 시각으로 항일전쟁을 연구한 학술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군사작전”을 다루면서 중국국민당의 정면전장에서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시기의 군사사연구를 집대성한 성과로는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에서 편찬한 『中国抗日战争史』(上·中·下卷)(解放军出版社 1994)를 꼽을 수 있다.¹⁵⁾

이밖에 전체적 시각에서 항일전쟁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성과로는 中国抗日战争史学会·中国人民抗战纪念馆의 『中国抗战军事史』(北京出版社 1995), 胡德坤의 『中日战争史 1931-1945』(武汉大学出版社 2005), 何理的 『中国人民抗日战争史』(上海人民出版社 2005), 齐福霖의 『中国抗日战争大事纪』(北京出版社 1997) 등이 있다. 이 저서들에서는 항일전쟁사를 역사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전쟁중의 군사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¹⁶⁾

15) 이밖에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에서 발간한 『中国抗日战争史画 第一卷 国难当头』(军事科学出版社 2005), 『中国抗日战争史画第二卷山河喋血』(军事科学出版社 2005), 『中国抗日战争史画第三卷中流砥柱』(军事科学出版社 2005), 『中国抗日战争史画 第四卷 冲破黑暗』(军事科学出版社 2005), 『中国抗日战争史画 第五卷 华夏秦凯』(军事科学出版社 2005) 등이 있으며, 항일전쟁연구 도구서적으로는 武克全의 『抗日战争大事典』(学林出版社 2005)이 있다.

16) 이 시기의 종합적 연구로는 또 林静云的 『浴血八年 中国抗日战争著名战役纪实』(中国言实出版社 2005), 何立波的 『七七事变 全国抗战的爆发点』(中共党史出版社 2005), 常铨·饶胜文的 『九一八 事变背后的角力』(中共党史出版社 2005), 马玉卿·于源 李灵霞의 『血与火的年代 中国人民五十年抗日救国斗争』(人民出版社 2005), 董志新·董志先의 『对联中的抗日战争』(中共中央党校出版社 2005), 陈之中·谭剑峰的 『抗日战争纪事 1937-1945』(解放军出版社 1990), 刘庭华的 『中国抗日战争论纲 1931-1945』(军事科学出版社 2005), 王秀鑫·郭德宏의 『中华民族抗日战争史 1931-1945』(中共党史出版社 2005), 贺圣遂·陈麦青의 『不能忘却的历史 抗战亲历实录』(复旦大学出版社 2005), 杨克林·曹红的 『不能忘记的抗战』(上海画报出版社 2005), 胡兆才의 『抗战烽烟』(鹭江出版社 2003), 王真的 『抗日战争与中国的国际地位』(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3), 张宏志의 『抗日战争的战略相持』(国防大学出版社 1990), 张宏志의 『抗日战争的战略反攻 1944-1945. 9』(国防大学出版社 1990), 游国斌의 『救亡与复兴 抗战时期的民族觉醒』(中国财政经济出版社 2005), 中共中央党史研究室第一研究部的 『中华民族抗日战争史 1931-1945』(中共党史出版社 2005), 齐卫平·郝先中的 『1937: 悲壮抗战』

1937년에 일어난 중일전쟁은 중국의 거의 모든 전역에서 치뤄진 전면전 쟁이었다. 1990년대 이후 항일전쟁 승리 50주년과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각 지방에서는 지방의 항일전쟁사를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항일전쟁의 종합적 연구와 상호보완되고 있다. 지방항일전쟁사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孙代兴·吴宝璋의 『云南抗日战争史』(云南大学出版社 2005), 『河南抗战简史』(河南人民出版社 2005), 陈荣华의 『江西抗日战争史』(江西人民出版社 2005) 등이 있다.¹⁷⁾

이밖에 중국의 항일전쟁을 반파시즘 전쟁의 일부분으로 다루어 보다 넓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시도한 저작들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로는 胡德坤·韩永利的 『中国抗战与世界反法西斯战争』(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5), 王振德的 『第二次世界大战中的中国战场』(社会科学文献出版社 1995), 彭训厚的 『世界反法西斯战争中的中国』(五洲传播出版社 2005), 王真的 『抗日战争与中国的国际地位』(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3) 등이 주목된다.

(学林出版社 2004), 王宏德·彭训厚的 『中国抗日战争60位著名人物』(国防大学出版社 2005), 金桂兰·韩旭东의 『中国抗日战争60件大事』(国防大学出版社 2005), 刘伟·袁静伟의 『中国抗日战争60次军事行动』(国防大学出版社 2005), 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부의 『中国抗日战争史』(解放军出版社 2005), 张宪文的 『中国抗日战争史 1931-1945』(南京大学出版社 2001), 胡锦涛·叶健君·黄启昌의 『中国抗日战争年度焦点: 1943-1945 黄河绝唱』(湖南人民出版社 2005), 胡锦涛·叶健君·黄启昌의 『中国抗日战争年度焦点: 1937-1939 醒狮怒吼』(湖南人民出版社 2005), 楚云的 『中日战争内幕全公开』(时事出版社 2005) 등이 있다.

- 17) 이밖에 河北省政协文史委의 『河北抗日战争图鉴』(河北人民出版社 2005), 『安徽抗日战争史』(安徽人民出版社 2005), 『抗日战争与福建』(福建教育出版社 2005), 『滇西抗日战争史』(云南民族出版社 2005), 沙东讯의 『广东抗日战争纪事』(广州出版社 2005), 李治亭의 『血肉长城 抗日战争沂蒙战地纪实』(青岛出版社 2005), 丁龙嘉의 『重整齐鲁河山』(山东人民出版社 2005), 左双文的 『华南抗战史稿』(广东高等教育出版社 2004), 罗玉明的 『抗日战争时期的湖南战场』(学林出版社 2002), 唐培吉의 『上海抗日战争史通论』(上海人民出版社 2001), 西如의 『中国抗日根据地发展史』(北京出版社 1995), 郭正洪·傅绍昌의 『上海人民支援新四军和华中抗日根据地』(上海人民出版社 2001), 文李梦文的 『武汉会战: 保卫大武汉』(团结出版社 2005), 谷峰的 『太原抗日风云录』(山西人民出版社 2002), 江淮의 『狂雪 东北抗日战争纪实』(江苏文艺出版社 2004), 湖南省档案馆의 『抗日战争时期湖南地下党历史』(湖南人民出版社 1992), 李剑白的 『东北抗日救亡人物传』(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 1991), 欧阳植梁·陈芳国的 『武汉抗战史』(湖北人民出版社 1995)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그 관점을 세계 반파시즘 전쟁이라는 국제적 배경에 두고 중국항일전쟁이 세계 반파시즘 전쟁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즉 중국인민의 항일전쟁은 일본을 독일의 히틀러와 연대하지 못하게 중국이라는 땅위에 묶어놓았음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부상되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 시기 사료집으로는 杜敬의 『冀中报刊史料集; 纪念抗日战争胜利五十周年』(河北教育出版社 1995), 党德信·刘则刚·林治波的 『文史资料存稿选编; 抗日战争』(中国文史出版社 2002) 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밖에 각 지방의 정치협상회의 문사자료위원회에서는 지방마다의 문사자료를 편찬하여 지방사연구와 제반 항일전쟁사연구에 1차적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항일전쟁이 일어난 후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제2차 국공합작으로 중국공산당 산하의 중국공농홍군이 팔로군과 신사군으로 개편되었다. 거기에 동북항일연군까지 포함하면 중국공산당 산하 군대는 세 갈래로 나뉘었다.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张廷贵 等の 『中共抗日部队发展史略』(解放军出版社 1990), 中共中央党史研究室的 『中国共产党抗战图志 1931-1945』(中共党史出版社 2005) 등에 서술되어 있다. 사실 이 세 갈래의 군대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전까지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지만 단일한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의 연구는 그 연구범위나 시각을 새롭게 하고 있다.

팔로군은 중국항일전쟁에서 일본군과 정면으로 싸운 공산당의 정규부대이다. 팔로군 군사사를 전문적으로 다룬 저서로는 岳思平的 『八路军』(中共党史出版社 2005), 王聚英의 『八路军抗战简史』(解放军出版社 2005), 乔希章의 『华北烽火 八路军抗日战争纪实』(中共党史出版社 2005), 刘家国的 『浴血奋战 抗日英雄八路军』(广西师范大学出版社 1994) 등이 있다.¹⁸⁾

18) 史耀清的 『太行精神 抗日烽火铸就的民族魂』(山西人民出版社 2005)은 태항산에서의 팔로군 무장투쟁을 서술하였는데 사실 이 태항산에는 조선의용군의 항일투쟁역사도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뒤에서 소개하는 “烽火”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외에 당시 팔로군, 신사

팔로군 산하 각 부대에 대한 연구로는 魏碧海의 『八路军一一五师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2002), 傅建文的 『八路军一二九师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2002), 冯捷의 『八路军一二零师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2002), 傅建文的 『太行雄师: 八路军一二九师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2005) 등이 있으며 팔로군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대첩을 이룬 백단대전을 주제로 한 文熊玉祥의 『百团大战: 破袭正太路』(团结出版社 2005) 등이 있다. 회고록으로는 张军锋의 『八路军老战士口述实录』(中央文献出版社 2005) 등이 출간되었다.

백단대전(百團大戰)은 역사적으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뒤바뀌면서 쟁론화되어 왔다. 그것은 이 전투를 지휘한 彭德怀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으로 엇갈리면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에 와서도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각각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면서 또한 당시 백단대전이 일으킨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다시 긍정 또는 기본적으로 긍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丁则勤의 『百团大战前华北日军对中共力量的认识和对策』(『抗日战争研究』第3期, 1997)은 다각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편, 林彪가 직접 지휘한 平型关战斗에 대해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그 당시의 상세한 작전과정 등에 대한 연구는 林彪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사군 군사를 다룬 문헌자료로는 中国人民解放军历史资料丛书编审委员会에서 편찬한 『新四军文献』(解放军出版社 1994)과 『新四军 综述 大事记表册』(解放军出版社 1993) 등이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제반 군사사를 다룬 저작으로는 王辅一的 『新四军简史』(中共党史出版社 1997), 『新四军战史』(中国人民解放军出版社 2000), 『新四军的组建与发展』(军事科学出版社 2001) 등이 있다. 童志强的 『关于新四军』(上海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5), 胡兆才의 『新四军演义』(广东教育出版社 1997), 常敬竹·董保存의 『江淮出师

군의 각지방관사처를 다룬 연구로는 中国人民解放军历史资料丛书编审委员会에서 편찬한 『八路军新四军驻各地办事机构』(解放军出版社 1999) 등이 있다.

新四軍初創與征戰』(解放軍文藝出版社 1995) 등이 있다.¹⁹⁾

항일전쟁시기 국민당과 공산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통해 항일무장투쟁을 하였지만 상호 갈등과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한 갈등이 첨예화되어 표출된 것이 바로 국민당군 8만명이 매복하여 이동 중인 신사군 2,000여명을 사살하고 4,500여명을 포로로 한 皖南事變이다. 이 사변은 항일전쟁중 장개석이 일으킨 가장 큰 사건이다. 이 사변에 대한 연구로는 『皖南事變』編輯委員會에서 편찬한 『皖南事變』(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90)이 주목을 받는다. 이 연구는 기존사료 외에 새로 발굴된 사료로 이 사건을 상세하게 재조명하고 있다. 환남사변 관련 다른 저서인 顧保孜의 『鐵血N4A: 重新崛起的新四軍』(解放軍文藝出版社 2005)는 국민당군에 의해 거의 전멸되다시피 된 신사군이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재기하는 과정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新四軍第四師老戰士回憶錄編委會에서 편찬한 『抗戰在淮北 新四軍第四師老戰士回憶錄』(長征出版社 1995) 등은 전 신사군 제4사의 노병들의 회고를 통해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으며 신사군 연구에 중요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²⁰⁾

팔로군과 신사군보다 일찍 항일무장투쟁에 나선 중국공산당의 무장역량은 동북항일연군이다. 동북항일연군은 사실상 동북지방의 항일무장투쟁 속에서 각 지방에 세워졌던 항일유격대가 합류하여 세워진 공산당의 무장역

19) 신사군 산하 각 부대의 군사를 다룬 연구로는 田玄의 『鐵軍縱橫 華中抗戰的新四軍』(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6), 『震撼人心的戰爭』編撰組에서 편찬한 『鐵軍無敵 新四軍征戰紀實』(天地出版社 2005), 中共江蘇省委黨史工委에서 편찬한 『新四軍聯抗部隊』(江蘇人民出版社 1995) 등이 있다. 이밖에 中國新四軍和華中抗日根據地研究會·四川省新四軍史料征集研究會에서 편찬한 『陳毅百年誕辰紀念文集』(四川人民出版社 2001)는 “환남사변” 후 신사군 대리군장을 맡았던 陳毅에 대한 연구성파로 신사군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20) 이밖에 항일전쟁중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이 공동으로 합작하여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또 갈등과 충돌을 겪은 역사를 연구한 李良志의 『度盡劫波兄弟在; 戰時國共關係』(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3), 柳建偉의 보고문학 『紅太陽 白太陽; 第二次國共合作啟示錄』(解放軍文藝出版社 2005), 吳子勇 등의 『閭闔御寇; 國共共赴國難紀實』(作家出版社 1997), 李良志의 『度盡劫波兄弟在; 戰時國共關係』(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3) 등이 있는데 이 역시 항일전쟁연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분야이다.

량이다. 동북항일연군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국공산당의 주력부대와 합류하지 못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수행하였으며 1930년대 말에는 중앙당과의 연락도 끊긴 상황에서 투쟁을 지속하여 왔다.

1990년대 이후 체계적으로 동북항일연군 역사를 다룬 연구성과로는 常好礼의 『东北抗联路军发展史略』(吉林大学出版社 1993), 董滨·魏纪奎·石礼文的 『东北抗日联军』(光明日报出版社 2005), 『东北抗日联军斗争史』编写组的 『东北抗日联军斗争史』(人民出版社 1991), 全勇의 『黑白关东』(中国档案出版社 1995) 등이 있다.²¹⁾

동북항일연군 산하 각 부대의 군사를 다룬 연구성과로는 흑룡강출판사에서 출판한 霍辽源的 『东北抗日联军第一军』(黑龙江人民出版社 2005), 霍辽源的 『东北抗日联军第二军』(黑龙江人民出版社 2005), 刘枫의 『东北抗日联军第三军』(黑龙江人民出版社 2005), 龚慧의 『东北抗日联军第四军』(黑龙江人民出版社 2005), 刘文新的 『东北抗日联军第五军』(黑龙江人民出版社 2005), 赵亮的 『东北抗日联军第六军』(黑龙江人民出版社 2005), 元仁山的 『东北抗日联军第七军』(黑龙江人民出版社 2005), 叶中辉의 『东北抗日联军第八~十一军』(黑龙江人民出版社 2005)이 있다. 이 저서들에서 서술하고 있는 항일연군 제1군부터 제7군의 모태는 반석(盘石)유격대, 동만(东满)유격대, 주하(珠河)유격대, 영안(宁安)유격대, 탕원(汤原)유격대, 요하(饶河)유격대 등이었는데, 이 유격대의 창설에는 거의 모두 조선인들이 참여하였다. 이들 부대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있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예컨대 반석유격대는 1932년에 중국인과 조선인들이 하마허즈(哈马河子) 일대의 반일 폭동 중에 조직된 것으로, 이 부대를 조직하고 지휘한 사람이 바로 중국공산당원이며 조선인인 이홍광(李红光)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中国朝鲜族历史足迹』丛书编委会에서 편찬한 『烽火』(民族出版社 1992)에서 많

21) 이밖에 실록으로 朱秀海의 『黑的土, 红的雪 东北抗日联军苦战记』(解放军文艺出版社 1995), 朱秀海의 『东北抗联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2002), 王晓辉의 『东北抗日联军抗战纪实』(人民出版社 2005) 등이 있다.

이 다루고 있다. 이 저서는 앞에서 서술했듯이 또 조선인들이 태항산에서 조선의용군의 신분으로 중국공산당과 손을 잡고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는 과정도 실록으로 편찬하였다.

이밖에 동북항일연군의 창설자이며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총지휘였던 양정우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卓昕의 『抗日民族英雄杨靖宇传奇』(解放军出版社 2002), 陈贵斌·孙华的 『杨靖宇将军传奇 东北抗日联军第一人』(新华出版社 1998) 등이 나왔다. 양정우 장군의 후임으로 있었던 周保中 장군의 『东北抗日游击日记』(人民出版社 1991)는 동북항일연군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자료로 되고 있다. 주보중의 일기에는 동북항일연군에 있었던 동북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항일투쟁사가 담겨 있기도 하다. 특히 1940년대초 소련의 극동지역에서 “국제여단”을 창설하여 북한의 김일성, 최용건, 김책 등과 같이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서술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항일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다.

일제가 중국의 동북을 강점한 후 이곳에는 공산당의 무장군 외에 많은 항일무장군이 싸웠다. 1931년 9·18사변 후 동북민중과 국민당군의 일부가 참여한 의용군, 구국군, 자위군 등이 있었는데 이를 총칭하여 동북항일의용군이라고 한다. 이 항일무장에 대한 연구로는 张泓의 『东北抗日义勇军·辽宁卷(2册)』(沈阳出版社 2003), 赵杰의 『血肉长城：义勇军抗日斗争实录』(辽宁人民出版社 2001)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항일전쟁중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연구한 성과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韩永利的 『战时美国大战略与中国抗日战场』(武汉大学出版社 2003) 등이 있다. 이밖에 주목되는 것은 항일전쟁 승리 60주년을 맞으면서 중국의 항일전쟁에 참가한 미군비행사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출간된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중국의 항일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 이처럼 목소리를 높여 선전하고 연구한 경우는 없었다. 역시 지금의 미국과의 관계 등도 이러한 연구가 많아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姜继永의 『大营救 抗战时期营救美军飞虎队大行动』(安徽人民出版社 2005), 汤汉

清·邵贵龙的『驼峰 1942-2002』(云南人民出版社 2005), 彭光谦·彭训厚的『援华抗日的美国飞虎队』(中共党史出版社 2005), 『营救美国兵 中国敌后抗日军民救援美国飞行员纪实』(中共党史出版社 2005), 杨耀健의 『解密飞虎队』(重庆出版社 2005) 등이 있다. 사실 이러한 연구와 서술을 통해 중국인들은 지난시기 이해하지 못하였던 많은 역사사실을 접하게 되었으며, 중국의 항일전쟁에서 미국이 치른 희생을 되새기게 되었다.

항일전쟁의 참가자들이 많이 생존해 있었던 1980~90년대에는 항일전쟁에 대한 회고록과 항일전쟁 참가자들의 취재기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항일전쟁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新华社解放军分社·北京青年报에서 편찬한 『我的见证: 200位亲历抗战者口述历史』(解放军文艺出版社 2005)는 항일전쟁 참가자 200명의 실제 구술로 항일전쟁을 재조명하고 있어서 항일전쟁연구에 중요한 1차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²²⁾

1945년 소련이 중국의 동북지방에 출병한 역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汪宇燕·何明의 『苏联出兵东北始末』(人民出版社 2005)과 ‘震撼人心的战争’编撰组 刘牛的『塞北大鏖兵 中苏对日大决战纪实』(天地出版社 2005) 등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소련의 출병과정과 일본관동군과의 전쟁을 서술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항일전쟁시기의 특정인물이나 민족, 그리고 중국의 항일전쟁에 직접 참가했거나 중국에 와서 항일전쟁을 도의적으로 지지하고 또 전세계에 중국항일전쟁의 실상을 알린 국제우호인사에 대한 연구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다. 黎国·王辛의 『抗日战争中的国际友人』(中央文献出版社 2005)은 에드가 스노, 안나 루이스 스트롱 등 중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미국기자 등 중국의 항일전쟁을 도의적으로 지지하고 선전한 외국인들의 항일실록을 담고 있다.

22) 이러한 회고록과 실록으로는 또 贺圣遂·陈麦青의 『不能忘却的历史: 抗战亲历实录』(复旦大学出版社 2005), 陈丕显의 『陈丕显回忆录: 苏中解放区十年』(上海人民出版社 2002), 杨迪의 『抗日战争在总参谋部: 一位作战参谋的历史回眸』(中国人民解放军出版社 2002), 刘大年的『我亲历的抗日战争与研究』(中央文献出版社 2000), 王政柱의 『烽火关山 战争年代纪事』(中共中央党校出版社 2000) 등이 있다.

李丽·张明的『抗日战争中的中共领袖』(中央文献出版社 2005), 王双梅의 『刘少奇与抗日战争』(中央文献出版社 2005) 등은 항일전쟁 중의 중국공산당 지도인물들이 서술되고 있다. 蒋泓의 『抗日战争中的民主人士』(中央文献出版社 2005), 李伟·雍际春·王三义的 『抗日战争中的回族』(甘肃人民出版社 2001) 등은 항일전쟁시기 항일구국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운 민주인사 또는 소수민족들을 다루고 있다.²³⁾

1990년대 이후 항일전쟁사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흐름이 바로 항일전쟁시기 정면전장에서 싸웠던 국민당군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국민당군의 역사를 중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국민당군에 대한 서술은 1960년대부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각 지방의 정치협상위원회에서는 선후로 “文史资料委员会”를 설립하면서 발간한 각급 『文史资料选辑』에 전 국민당군 지휘자들의 회고록이 많이 실렸는데 이들은 대부분 의거한 지휘자들이 아니면 개조를 거쳐 전향한 장교들로서 국민당의 이른바 소극적 항일투쟁을 폭로하는 내용이 많았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당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며 국민당의 항일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여 왔다. 국민당은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항일을 하였으며 항일전쟁에서 패배만 하고 도주만 하였다는 것이 정설로 부각되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당의 항일에 대한 평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중화민국사를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항일전쟁에서의 정면전장(正面战场)이 연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대만에 있는 국민당 군의 자료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고 새로운 사료를 발굴, 보충하는데 주력한 동시에 “원 국민당

23) 같은 주제의 저서들로는 또 穆成林的 『开国元勋眼中的抗日英烈』(中共党史出版社 2005), 萧泓·龚格的 『抗日战争中的元帅将军』(中央文献出版社 2005), 施宇·徐宏의 『抗日战争中的爱国将领』(中央文献出版社 2005) 등이 있다.

장령항일전쟁실록” 총서를 편찬하면서 생존해 있는 국민당 지휘관들의 회고록이 대량 출간되기 시작하여 국민당의 항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민당군이 일본군과 싸웠던 정면전장의 전역(战役)과 전투(战斗)에 대한 군사학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 분야의 공백이 메워지기 시작하였다.

이 분야의 연구에서 기존의 관념을 깨뜨리고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자료발굴로는 1983년에 浙江省中国国民党历史研究组에서 편찬, 발간한 『抗日战争时期国民党战场史料选编』과 1987년 中国第二历史档案馆에서 편찬한 『抗日战争正面战场』(上·下)(江苏古籍出版社 1987), 张宪文的 『抗日战争中的国民党战场』(解放军出版社 1987)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당의 항일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중국공산당이 문화대혁명 등 과거역사에 대한 재평가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1980년대는 국민혁명군의 역사연구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기초위에서 1990년대부터 국민혁명군에 대한 연구는 국부전역(局部战役)으로부터 전체에 이르기까지 초기단계로부터 마지막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며 다시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민당군의 정면전장(正面战场)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로는 张洪涛·张朴宽的 『燃烧的太阳 国民党正面战场抗战纪实』(团结出版社 1994), 赵丰主的 『国民党抗战纪实』(中国戏剧出版社 1993), 王振德的 『第二次世界大战中的中国战场』(社会科学文献出版社 1991), 张明楚·张同新·何仲山的 『在历史的漩流; 抗战时期的国民政府』(广西师范大学出版社 1996), 胡兆才의 『血战: 国民党军正面战场抗战纪实』(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戚厚杰·王晓华的 『黄河魂 第一·二·八战区抗战纪实』(中国档案出版社 1995), 郭汝瑰·黄玉章의 『中国抗日战争正面战场作战记』(江苏人民出版社 2002) 등이 있다. 이 저서들에서는 국민당군의 긍정적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과오를 묵과하지는 않는다. 郭汝瑰·黄玉章의 『中国抗日战争正面战场作战记』와 같은 저서들에서는 작전능력의 부재보다 국민당군에 만연한 부패가 국

민당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킨 근본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국민당의 항일전쟁 역사는 이미 중국의 제반 항일전쟁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군사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다. 군사학적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룬 연구로는 张宏志의 『抗日战争的战略相持』(国防大学出版社 1990), 『抗日战争的战略反攻: 1944-1945. 9』(国防大学出版社 1990), 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部에서 편찬한 『中国抗日战争史』(解放军出版社 1991) 등이 있는데, 모두 국민혁명군의 정면전쟁을 포함하여 제반 항일전쟁사를 군사학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다. 이와 더불어 항일전쟁시기 사실상 중국전구(中国战区)의 최고통수권자였던 장개석에 대한 평가 역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杨树标·杨菁의 『中国战区的“最高统帅”抗战时期的蒋介石』(广西师范大学出版社 1996)이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개석이 홍군토벌로부터 항일 투쟁으로 돌아서는 과정, 항일에서의 공과를 전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자체가 바로 국민당군의 항일전쟁사이기도 하다.

국민당이 주도하였던 중요한 전역(戰役)과 전쟁 지역에 대한 연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路滔의 『血战台儿庄』(中共中央党校出版社 2005), 李占才의 『江淮血 第五战区抗战纪实』(中国档案出版社 1995), 王少华的 『楚天云 第六·九战区抗战纪实』(中国档案出版社 1995) 등이 바로 그러한 연구 성과들이다.²⁴⁾

이밖에 국민혁명군의 고급간부들의 회고록, 문집, 실록 등도 1980년대에 이어 계속 나오고 있다. 党德信·杨玉文的 『国民党抗战骁将: 炎黄忠魂录』(解放军出版社 1994)에서는 항일전쟁에서 커다란 전과를 올린 국민당군 장령들의 업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林治波的 『抗战军人之魂: 张自忠将

24) 같은 주제의 연구로는 全国政协『晋绥抗战』编写组的 『晋绥抗战』(中国文史出版社 1995), 『闽浙赣抗战』编写组的 『闽浙赣抗战』(中国文史出版社 1995), 全国政协『中原抗战』编写组的 『中原抗战』(中国文史出版社 1995), 徐志耕의 『浴血淞沪: “八一三”大上海保卫战』(解放军文艺出版社 2005), 王晓华·王少华的 『东方祭 第三·四·七战区抗战纪实』(中国档案出版社 1995) 등이 있는데 모두 국민당이 주도한 전역과 각 전쟁구역의 항일전사를 다루고 있다.

军传』(广西师范大学出版社 1993), 刘立云的『血满弓刀: 抗战中的杜聿明将军』(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5) 등은 국민당군 특정인물들의 항일업적을 상세하게 재조명하고 있다. 何应钦의『何上将抗战期间军事报告』(上海书店 1990) 등 문집들은 국민당의 항일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헌자료가 되고 있다.²⁵⁾

이밖에 소련과 중국국민당 군의 관계를 다룬 黎世红的『苏联与中国国民军』(重庆出版社 2001) 등의 연구도 나왔다. 또한 “서안사변”을 일으켜 장개석의 항일투쟁을 촉구하였던 국민당군 장령인 장학량과 그의 동북군에 대한 연구도 1980년대에 이어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성과로는 张友坤·王云鹏의『张学良轶事』(华文出版社 2000), 张学良暨东北军史研究会的『张学良暨东北军将领传』(中国华文出版社 1993), 张学良暨东北军史研究会的『张学良暨东北军新论』(中国华文出版社 1993), 刘祖荫·连军·常景兴의『张学良与东北军五十七军』(中国华文出版社 1993), 『张学良与东北军史研究文集』(香港同泽出版社 1998) 등이 있다. 그중 『张学良暨东北军新论』과 『张学良与东北军史研究文集』은 국내 또는 국제학술회의 논문을 수록한 것들이다.

이밖에 戴孝庆·罗洪彰의『中国远征军入缅抗战纪实 1941-1945』(西南师范大学出版社 1990), 王晓华的『远征颂 中国远征军, 驻印军抗战纪实』(中国档案出版社 1995),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文史资料研究委员会『远征印缅抗战』编审组的『远征印缅抗战』(中国文史出版社 1990) 등은 국민당 군이 제1차, 제2차 원정을 단행하여 버마방위전과 인도 전역에 투입되어 버마 반격전에서 일본군과 싸우는 전과정을 밝히고 있다.

25) 원 국민당군의 장령이었던 文闻의 회고록 『我所亲历的武汉会战』(中国文史出版社 2005), 『我所亲历的南京保卫战』(中国文史出版社 2005), 『我所亲历的淞沪会战』(中国文史出版社 2005), 『我所亲历的印缅抗战』(中国文史出版社 2005), 『我所亲历的桂南·桂柳会战』(中国文史出版社 2005), 『我所亲历的台儿庄会战』(中国文史出版社 2005), 『我所亲历的忻口会战』(中国文史出版社 2005), 『我所亲历的常德·长衡会战』(中国文史出版社 2005)은 저자가 직접 경험하였던 국민당군과 일본군과의 대결을 실록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실록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못하던 것들이다. 역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당 군의 전면전장에서의 역할, 구체전역에서의 전략 등에 대한 군사학적 연구는 『抗日战争研究』, 『军事历史研究』, 『历史研究』, 『近代史研究』 등 학술간행지에서 논문형식으로 대량 발표되고 있다. 예컨대 杨立强的 『抗战初期国民党中央统帅机关决策幕后』(『军事历史研究』 第1期, 1997), 韩信夫的 『台儿庄大捷及其在抗日战争中的地位』(『近代史研究』 第2期, 1994), 余字道的 『论抗战初期正面战场作战中心之转移』(『抗日战争研究』 第3期, 1992) 등 대량의 논문들이 이러한 연구성과인데 서로 다른 견해들로 논쟁이 일고 있는 주제들도 없지는 않다.

항일전쟁시기의 국민당군 해군과 공군군사를 연구한 저서들도 있다. 高晓星的 『怒潮狂飙 国民党海空军传奇』(江苏人民出版社 1999)와 唐学锋의 『中国空军抗战史』(四川大学出版社 2000) 등은 국민당군의 공군이 소련, 미국의 공군과 합작하여 대일공중작전을 벌린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6. ‘해방전쟁사’와 중국인민해방군사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팔로군과 신사군은 국공내전을 펼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여 오늘의 중국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다. 항일전쟁의 승리를 이룩하면서 일본제국주의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항일이라는 공동목표로 합작을 하여 왔던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갈등은 점차 첨예화되어 연합정부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46년 6월에 끝끝내 국공내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내전은 동북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펼쳐나갔으며 중국공산당은 초기의 100만 무장병력으로 국민당군의 807만 병력을 소멸하는데 이른다.

이 시기 중국인민해방군은 주로 제1야전군으로부터 제4야전군으로 나누는데 이 시기의 군사사 연구도 역시 초점을 이 부대들에 맞추고 있다. 구체

적 연구성과로는 中国人民解放军第一野战军战史编辑委员会에서 편찬한 『中国人民解放军第一野战军战史』(解放军出版社 1995), 中国人民解放军第二野战军战史编辑委员会에서 편찬한 『中国人民解放军第二野战军战史』(解放军出版社 1990), 南京军区『第三野战军战史』编辑室的 『中国人民解放军第三野战军战史』(解放军出版社 1996), 中国人民解放军第四野战军战史编辑委员会에서 편찬한 『中国人民解放军第四野战军战史』(解放军出版社 1998) 등이 있다.²⁶⁾

위와 같이 각 야전군 군사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동시에 각 야전군 예하부대의 군사사에 대한 연구도 전쟁사연구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많이 다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宋天泉 등의 『拂晓劲旅 中国人民解放军第二十一军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2004), 彭相泰의 『烈焰狂飙 中国人民解放军第二十四军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2004), 苏灿杰·王卿军·姜湘卿의 『威武之师 中国人民解放军第二十七军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2004), 孙怀国的 『铁血硝烟 中国人民解放军第四十七军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2004), 王树和의 『大地旋风 中国人民解放军第四十军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2004), 张洪舜의 『华东铁流 中国人民解放军第二十三军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2004) 등이 있다.²⁷⁾

26) 동일한 주제로 된 연구는 이밖에 孙文广의 『一野战事珍闻全记录』(军事科学出版社 2005), 王钟华的 『二野战事珍闻全记录』(军事科学出版社 2005), 贾文祥의 『三野战事珍闻全记录』(军事科学出版社 2005), 郭辉의 『四野战事珍闻全记录』(军事科学出版社 2005), 陈枫编의 『四大野战军征战纪事 中国人民解放军第一·第二·第三·第四野战军征战风云全纪录』(中央编译出版社 2004), 王辅一의 『华东军区 第三野战军简史』(中共党史出版社 2002), 马肇钧의 『中国人民解放军第一野战军征战日志』(解放军出版社 2001), 宋绍明的 『彭德怀血战大西北 第一野战军大西北征战纪实』(作家出版社 2000), 第一野战军战史编审委员会의 『中国人民解放军第一野战军战史图集』(解放军出版社 1997), 王玉彬의 『第二野战军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2000), 傅岩编의 『饮马金沙 第二野战军解放大西南纪实』(国防大学出版社 1999), 丁炳生等의 『第三野战军征战记』(军事科学出版社 1997), 王迪康의 『第四野战军南征纪实』(解放军出版社 1993), 魏碧海的 『第四野战军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2000), 陆平编의 『横槊五岭 第四野战军解放中南纪实』(国防大学出版社 1999), 魏白编의 『四野十大主力传奇』(黄河出版社 1996), 戴常乐·刘联华主编의 『第四野战军』(国防大学出版社 1996) 등이 있다.

27) 이밖에 王彦·孙忠杰의 『济南第二团』(黄河出版社 2003), 姜思毅의 『刘邓大军史话』(解放军出版社 2002), 陈忠龙的 『屡创奇迹的60军』(中共党史出版社 2002), 傅崇碧·史进前·徐

중국인민해방군이 치른 수많은 전역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역은 동북에서 치른 辽沈战役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전후 동북이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북이 누구 손에 장악되는가 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문제였으며 동북지방을 장악하는 쪽이 전국적인 승리의 전기를 잡게 되었다.²⁸⁾ 그렇기 때문에 모택동은 중국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동북이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면 우리의 승리는 토대를 확보한 셈이고 우리의 승리는 결정된 것”이라고 하였다.²⁹⁾ 이 시각에서 볼 때 사실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결전은 사실 동북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기본상 결판이 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방전쟁시기’의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사연구에서 동북해방전쟁시기의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사연구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위에서 서술한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은 동북에서 이루어졌다. 1945년 소련이 출병하고 일본이 투항하면서 정치적으로 공백이 생긴 동북으로 팔로군과 신사군 부대들이 진출하여 동북항일연군과 합병하여 동북인민자치군으로 재편되며 1946년 국공내전이 벌어진 후에는 동북민주연군으로, 1948년에는 동북인민해방군 또는 동북야전군으로 개칭하였다가 1948년부터 1949년에 정식으로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으로 칭하게 되었다.

바로 이 제4야전군이 치른 ‘동북해방전쟁’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朱建华의 『东北解放战争史』(黑龙江出版社 1987) 등이 있으며, 中共中央党史资料征集委员会와 中国人民解放军辽沈战役纪念馆建馆委员会에서 편찬한 『辽沈决战(上·下)』(人

信的『晋察冀暨华北人民解放军征战图集』(长城出版社 2001), 李金明的『华北军区野战军征战纪实』(解放军文艺出版社 2000), 辛鹰主的『我们战斗在前哨』(解放军文艺出版社 1999), 王永康의『战火中的文艺战士』(贵州民族出版社 1999), 百旅之杰编委会의『百旅之杰 二十军史话』(杭州出版社 1999), 步兵第四师师史编写组的『步兵第四师师史』(中国人民解放军步兵第四师政治部 1997), 王勇의『大转折: 刘邓, 陈粟, 陈谢三支大军经略中原』(国防大学出版社 1997) 등이 있다.

28) 김경일, 『중국의 한국전쟁참전기원』논형, 2005, p. 175 참조.

29) 위의 책, p. 175에서 재인용.

民出版社 1988) 등이 있다. 이밖에 『辽沈战役亲历记』(中国文史出版社 1985)은 그 동북전쟁을 결판지은 辽沈战役에 참가했던 국민당과 공산당 장령들의 회고록을 싣고 있어 당시 쌍방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군사학적 연구에서 중요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李建国的 『辽沈战役研究』(湖南人民出版社 1998), 中国人民解放军历史资料编审委员会에서 편찬한 『辽沈战役』(湖南人民出版社 1993), 王道平·周宏雁·姜铁军在 편찬한 『震撼世界的大决战』(解放军出版社 1992), 唐洪森的 『东北解放战争研究』(辽宁大学出版社 1994) 등이 있다.³⁰⁾

‘동북해방전쟁’을 치른 후의 다른 중대한 전역에 대한 연구도 물론 많은 성과물을 내놓았다. 역시 이 시기 전쟁사연구의 초점으로 되어 군사학적 시각에서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 왔다. 马云鹏의 『会战平津』(辽宁人民出版社 1998)과 같이 平津战役을 다룬 저서 등이다.³¹⁾

중국인민해방군이 치른 제반 전역을 종합적으로 다룬 권위있는 연구로는 中国人民解放军历史资料丛书编审委员会의 『解放战争战略防御 综述 大事记 重要战役简介 表册 图片 参考资料』(解放军出版社 2001)를 꼽을 수 있다.

‘해방전쟁시기’ 중국국민당 군대는 중국인민해방군과의 대결에서 말 그대로 추풍낙엽이었다. 바로 이 과정에 수많은 국민당군의 장병들이 의거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의 병력으로 보충하였다. 이 방면에 대한 연구로는 中国人民

30) 이밖에 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部에서 편찬한 『中国人民解放军全国解放战争史』 第四卷(军事科学出版社 1997)와 董殿稳의 『决战辽沈』(辽宁人民出版社 1998) 등도 辽沈战役을 상세하게 논술하고 있다.

31) 이밖에 王维广의 『大较量』(国防大学出版社 1998), 陆平·赵京伟主编 解鸣等の 『大追击』(国防大学出版社 1998), 张高陵의 『大决战』(国防大学出版社 1998), 凌行正·黎品纯의 『进军中南』(辽宁人民出版社 1998), 刘振华의 『解放海南』(辽宁人民出版社 1998), 张罗等の 『情萦八桂大地』(香港 天马图书有限公司 1997), 文若鹏·张炳顺·孙科佳的 『中南大剿匪』(国防大学出版社 1997), 王勇의 『大转折 刘邓, 陈粟, 陈谢三支大军经略中原』(国防大学出版社 1997), 董殿稳의 『挺进东北』(辽宁出版社 1998) 등은 전중국을 무대로 이루어진 해방전쟁을 상세하게 조명하고 있으며 해방전쟁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解放军历史资料丛书编审委员会에서 편찬한 『解放战争时期国民党军起义投诚辽吉黑热地区』(解放军出版社 1996) 등이 있다. 이밖에 중국인민해방군의 티베트 진출을 기록한 晓浩의 『西藏, 1951年人民解放军进藏实录』(民族出版社 1999), 林田의 『进军西藏日记』(中国藏学出版社 1994) 등 실록들이 있다.

‘동북해방전쟁’에서 중국조선족이 모여살고 있는 동만지구는 국민당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근거지로 되어 후방 역할을 하였다. 그 시기 ‘동북해방전쟁’에 참가한 중국조선족은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 이에 대한 실록과 연구는 中国朝鲜族历史足迹编辑委员会의 『胜利』(民族出版社 1992), 韩俊光·姚作起的 『解放战争时期的东满根据地』(延边人民出版社 1991), 金东和의 『闪光的青春』(延边人民出版社 1992) 등 저작들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7. 6·25전쟁과 중국인민지원군사

항일전쟁사와 ‘해방전쟁사’ 연구에 못지않게 상당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한 전쟁사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전의 연구는 기본상 참전과정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6·25전쟁에서의 제1차로부터 제5차 전역에 대한 군사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전략, 전술에 대한 선전과 총화가 주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이후 6·25전쟁과 관련한 회고록, 보고문학, 당안(檔案) 등 1차적 자료들과 6·25전쟁 발발원인과 참전원인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6·25전쟁에 관해서는 그 기원에 대한 연구보다도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6·25전쟁 발발원인을 부분적으로 밝히고 있는 새로운 연구성과들로는 华庆昭의 『从雅尔塔到板门店』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2), 赵学功의 『朝鲜战争中的美国与中国』(山西高校联合出版社 1995), 林利民的 『遏制中国-朝鲜战争与中美关系』(时事出版社 2000), 陈新明的 『三八线的较量: 朝鲜战争与中苏美互动关系-朝鲜战争与中苏美互动关系』(国际文化出版社 2000), 胡兆才의 『中美决战在朝鲜』(广东教育出版社 2002) 등이 있다.

1990년대에 공개하기 시작한 구소련의 외교문서를 토대로 6·25전쟁 발발원인과 중국의 참전원인을 연구한 주요성과로는 沈志华의 『毛泽东, 斯大林与韩战 中苏最高机密档案』(香港 天地图书有限公司 1998), 沈志华의 『毛泽东, 斯大林与朝鲜战争』(广东人民出版社 2003)이 있는데 심지화는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오쩌둥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참전문제를 고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국은 첫째, 중국이 ‘티토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며 사회주의 진영에서 고립되는 것을 피하는 것, 둘째, 중국 국경 내에서 미국과 전쟁을 벌여 중국 정세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셋째, 미국이 전쟁의 불길을 중국으로 돌린 기회를 틈타 소련이 중·소동맹조약을 이용하여 중국 동북지방에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전하였다는 것이다. 미소냉전의 시작과 과정에서 중국의 참전원인을 밝힌 张盛发的 『斯大林与冷战』(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0)은 6·25전쟁을 유럽에서의 미소 양국의 쟁탈과 대립의 연장이자 굴절로 보면서, 6·25전쟁은 결국 미소 양국이 냉전기간 중 자신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분출구를 찾기 위한 결과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그는 6·25전쟁은 스탈린이 대한반도 정책을 전환하고 미국을 오판하여 한반도의 통일계획을 서두름으로써 발발한 것이고, 중국이 참전하게 된 것도 스탈린이 중국을 반미투쟁의 제일선으로 떠밀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적 견해와는 궤도를 달리한 것이다.

중국의 참전과정중 모택동과 중국지도층의 정책결정과정을 밝힌 권위 있는 연구는 逢先知·李捷의 『毛泽东与抗美援朝』(中央文献出版社 2000)이다.

이 책은 그 당시의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모택동이 정책결정과정에 겪었던 어려움을 밝히고 있으며 일부 자료는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중국의 6·25전쟁참전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저서로는 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部の 『抗美援朝战争史』(第一·二·三卷)(军事科学出版社 2000)를 꼽을 수 있다. 총 3권으로 된 이 연구저서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인용하여 항미원조사를 재조명하였지만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등 학술적인 면에서 결핍되는 부분이 있다. 이밖에 国防大学战史简编'编写组的 『中国人民志愿军战史简编』(解放军出版社 1992) 등은 체계적으로 항미원조전쟁과정을 밝힌 저서들이다.

중국지도층의 항미원조전쟁 지도과정을 연구한 저서로는 齐德学的 『朝鲜战争决策内幕』(辽宁大学出版社 1991), 杨凤安·王天成的 『驾驭朝鲜战争的人』(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3), 朱世良의 『彭德怀在朝鲜战场』(辽宁人民出版社 1996), 齐德学的 『巨人的较量: 抗美援朝高层决策和指导』(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9), 徐焰의 『毛泽东与抗美援朝战争: 正确而辉煌的运筹帷幄』(解放军出版社 2003) 등이 있다. 거의 모두 모택동이 6·25전쟁에서의 중조연합군을 어떻게 지휘하였는가 하는 구체적과정과 매개 전역에 대한 구체적 지시 등을 문헌자료, 전보문 등 1차적 자료로 파헤치고 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부터 종전까지의 전쟁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성과들로는 徐焰의 『第一次较量: 抗美援朝战争的历史回顾与反思』(中国广播电视出版社 1990), 沈宗洪·孟照辉의 『中国人民志愿军抗美援朝战史』(军事科学出版社 1990)³²⁾ 등이다. 1980년대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연구

32) 비슷한 주제의 연구로는 이밖에 徐京跃의 『日出日落三八线: 抗美援朝纪实』(军事科学出版社 1995), 『抗美援朝的凯歌: 纪念中国人民志愿军赴朝参战四十周年』(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 1990), 吴瑞林的 『抗美援朝中的第42军』(金城出版社 1995), 中国军事博物馆 编的 『抗美援朝战争风云录』(花城出版社 1999), 楚云的 『朝鲜战争内幕全公开』(时事出版社 2005), 丁伟의 『血火三千里 朝鲜战争』(军事科学出版社 2000), 谭旌樵의 『抗美援朝战争』(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0), 宋连生的 『抗美援朝再回首』(云南人民出版社 2002), 王树增의 『远东-朝鲜战争』(解放军文艺出版社 2000) 등이 있으며, 관련 논문집으로는 林源森等的 『震撼世界一千天: 抗美援朝战争胜利50周年纪念文集』(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 등이 있다.

는 방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지만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며 군사학적인 깊은 연구 또는 역사학적인 깊은 연구가 결핍하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출간된 것들도 많다 할 수 있다. 이밖에 徐焰·吴少京의 『抗美援朝战争画卷』(中央文献出版社 2000)은 <전략적반격중의 5차례 전역>, <전략적방어중의 진지전>, <기술병종의 작전>, <강철운수선과 후근사업> 등 내용으로 항미원조전쟁의 작전과정과 각 병종의 협동작전, 전쟁중 후근사업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소상하게 이루어져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6·25전쟁 당사자들의 회고록과 종합실록(원자료를 토대로 글쓴이의 각색이 가미된 역사서의 총칭)도 많이 출간되었는데 1980년대 이전에 출간되어 한때 정치선전용으로, 실록으로서의 사료가치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志愿军一日』(解放军文艺出版社 2000)이 志愿军一日编辑委员会에 의해 보완 추가되어 출판되었다. 그 외에도 陈兴九의 『朝鲜战场一千天: 一个志愿军战士的日记』(军事科学出版社 2003) 등이 있다.³³⁾

童德先의 『血战上甘岭: 一次举世闻名的战役』(军事科学出版社 1990)은 6·25 전쟁중 가장 치열하였던 상감령전역(오성산 저격능선전투)의 방어전을 군사학적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다. 상감령전역은 사실상 중국에서 영웅주의를 고취하는 주제로 줄곧 선전해 온 주제이다.

1990년대부터는 6·25전쟁 중의 포로문제를 다룬 실록이 많이 나왔다. 지원군과 인민군포로들 뿐만 아니라 연합군포로들에 대한 실록으로 程来仪의 『正义与邪恶的较量: 朝鲜战争战俘之谜』(中央文献出版社 2000), 贺明的 『见证:

33) 이밖에 袁伟等的 『抗美援朝战争纪事』(解放军出版社 2000), 胡海波的 『志愿军战事珍闻全记录』(军事科学出版社 2005), 程公主의 『回忆中国人民志愿军公路工程大队』(辽沈书社 1994), 郭志刚等的 『较量: 抗美援朝战争纪实』(中国青年出版社 2001), 李峰的 『决战朝鲜』(长江文艺出版社 2002), 许晨의 『血染的金达莱 撤兵朝鲜纪实』(中国社会出版社 1992), 何孔德的 『一个画家眼中的朝鲜战争 插图日记』(解放军文艺出版社 2000), 齐德学的 『抗美援朝纪实』(华夏出版社 1996) 등은 당사자의 회억이나 종합적인 실록을 통해 그 전쟁을 재조명하고 있다.

朝鮮戦争戦俘遺返解釋代表の日記』(中国文史出版社 2001), 边震遐의 『干戈・玉帛: 朝鮮戦争中の“联合国軍”戦俘』(解放军文艺出版社 1994) 등이 있다.³⁴⁾

6·25전쟁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 아직까지 금구가 있으며 관련 외교문서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쟁의 발발원인, 중국군참전기원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침체상태에 있으며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앞으로 외교문서 등이 공개되는 시점에 이르면 이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8. 결 론

본론에서는 주로 1990년대를 기점으로 그 후의 연구성과만 개괄하여 다루었지만 이 기간의 연구성과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간략한 소개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의 연구가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 그리고 새로운 사료의 발굴에 의해 그 이전과 다른 시각과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연구성과에 대한 소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소개한 연구성과들은 주로 저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사실 본론의 주제에 관련된 연구성과로는 방대한 양의 논문들이 축적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문들이 게재된 대표적 학술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쳤다.

본론에서 서술하였듯이 1990년대 이후의 군사사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연구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항일전쟁을 예로 들면

34) 그 외에 大鷹의 『志愿军战俘纪事 续集 生命只有一次』(中国青年出版社 1993), 程绍昆・黄继阳의 『美军战俘: 朝鲜战争火线纪事』(时事出版社 2003), 王泰庆의 『“联合国军”战俘纪事 忆朝鲜战争中的碧潼战俘营』(解放军出版社 2000), 张泽石的 『我的朝鲜战争 一个志愿军战俘的自述』(时事出版社 2000) 등은 지원군포로거나 유엔군포로를 서술한 저서들이다.

지방의 항일전쟁사까지 상세하게 연구되고 있다. 군사사에서 전쟁사뿐만 아니라 정치사업사, 후근사, 각 병종사, 각 부대의 역사 등이 모두 연구대상으로 되고 있다. 둘째로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에는 좌경적인 영향이 사라지면서 군사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성공한 경험과 실패한 경험에 대한 연구가 객관성을 띠고 있다. 셋째로 상당한 양의 회고록이 출간되어 연구에 1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이 시기 많은 당사자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그들의 회고록을 출간하는 것은 역사적 사료를 남긴다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 넷째로 이 시기의 연구가 연구집단에 의해 몇 백만자의 성과를 낸 대형프로젝트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많은 소장과학자들이 대량으로 등장하여 보다 새로운 시각과 연구방법으로 참신한 연구성과를 이룩하여 왔다. 다섯째로 가장 주목되는 특징으로는 중국근대사에서의 공백이었던 국민혁명군군사사에 대한 연구가 중화민국사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객관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방대한 양의 성과들이 배출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출간된 저서들이 적지 않다. 학술적 가치보다 상업적 가치를 선위에 놓았기에 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군사사연구를 시도한 많은 학자들이 군사학전문가가 아닌 역사학자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사연구라고 하지만 군사적 시각이 모자라는 면이 없지 않다. 역으로 군사사전문가나 군사학전문가들은 또 역사에 있어서는 역사학자들의 시각을 갖추지 못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상호보완해야 하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그리고 근현대역사연구와 비교할 때 군사사연구는 아직도 많이 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사사연구에서 아직까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내용으로는 근대군사사에서의 군사기술, 군대제도, 군사교육과 훈련, 군사학술과 군사사상 등 면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³⁵⁾

35) 茅海建 刘统, 「50年来的中国近代军事史研究」, 『近代史研究』, 1999年 第五期 참조.

중국의 근대사이후 군사사는 사실상 전쟁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토지혁명전쟁이나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이나 미국과 싸운 국제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설혹 내전이라고 하여도 토지혁명전쟁은 소련과 국공내전은 미국, 소련과 관련이 있는 전쟁이었다. 관련국의 사료 또는 연구와 결부하여 내놓은 연구성과가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 것은 역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6·25전쟁에 관련된 연구가 국외에서 많이 진행되었지만 대표적인 연구성과들이 아직 소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원고투고일 : 2005. 10. 13, 심사완료일 : 2005. 11. 18)

주제어 : 청일전쟁, 토지혁명전쟁, 항일전쟁, 6·25전쟁, 중국인민지원군사

K C I

<ABSTRACT>

The Courses of Chinese Military History Research since 1990

Kim, Kyoung-il
(Prof., Peking University, China)

Since 1950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search about the history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launched und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bundant resources were collected before the 1980s and systems of study developed also. During this period the focus on the military history covered from the creation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to the Korean War. In contrast there was a deficiency of comprehensive inquiries due to the international Soviet-U.S. Cold War, ideological conflicts and domestic political situations.

From the 1980s reforms led to greater openness, and reevaluation of national history, and inquiries into the wars and military actions of the past have become lively as never before. If the 1980s was the transitional period, the 1990s to the present may be called the prime of the new movement. In the latter period, issues which had long been deemed taboos of scholarship began to be subjected to research. In particular, study on the *Guomindang* Forces, the People's Liberation Army's fiercest opponent, gained momentum in earnest, and the gaps of research began to be filled. This provided for a chance to approach the history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from more objective and rounded perspectives.

This paper surveys and describes, with respect to time periods, the comprehensive military history researches di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nce the 1990s, which include: modern historical inquiries regarding the Sino-Japan War, the Red Army of Laborers and Farmers at the time of the Land Reform War; the Eighth Line Army, the New Forces Army, and the Northeast Anti-Japan Alliance during the War Against Japan; the *Guomindang* Army; the People's Liberation Army during the War of Liberation; and the Communist Volunteers' Army during the Korean War.

An examination of the characters and directions of military history research during this period reveals increasingly objective and comprehensive scholarship, unearthing of new primary sources and incorporation of fresh methodologies, and a beginning of more tolerant, multi-view approaches to subjects. It is also noteworthy that history and war history are receiving much more professional attention. Also numerous weighty issues have been selected as research projects by the government and relevant institutes, whose abundance of researchers has achieved remarkable results. If the research of the past were marked by total affirmation or total rejection of ideas, from the 1990s on arguments and conversations have been increasingly active among conflicting views. These conversations are mostly taking place in the form of papers presented through military history publications.

The military history scholarship in China since the 1990s, in summation, is finding new directions as a discipline at once comprehensive in its rounded approaches and specialized in its diversifying views. The quality of scholarship is seeing more specialization. Also scholars in touch with the flow of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ty have appeared in a large number, attempting studies that enhance the level of scholarship and widen the academic scope.

Many problems remain to be solved, but the research of this period has

undoubtedly brought much improvement in relevant expertise and its scope, providing a needed turning point in the historical inquiry into the Chinese military.

Key Words : Sino-Japanese War, Land Reform War, War Against Japan, Korean War, Communist Volunteers' Army

K C I